지식경제부 보도자료	http://www.mke.go.kr
'10년 9월 7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문의 : 투자유치과장 정대진(2110-5361), 이경민 사무관(2110-5368)	

싱가포르 투자가들, 국내 유망기업 지분인수 관심고조

– 지경부, 싱가포르에서 국내기업 7개사와 공동 IR 개최–

□ 지식경제부는 **9.6(월) 싱가포르에서 기술력 있는 국내 유망기업 7개사**와 함께 2.45억불 규모(투자유치 희망규모)의 **싱가포르 자본 유치에 나섬**

○ **국내 기업의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에 싱가포르의 자본력과 글로벌 Network이 결합**될 경우, **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**할 것이라는 점에서 금번 활동은 현지와 국내 투자가들의 눈길을 끔

□ 유망기업 공동 IR은 **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 싱가포르 방문**시, **기술력 있는 국내기업에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싱가포르 현지 수요가 제기**됨에 따라 시작되었으며

○ 기술력 있는 국내 유망기업과 글로벌 Network을 보유한 공신력 있는 싱가포르 자본간의 결합을 통해, 기업의 자본 확보, 인지도 제고와 글로벌 Network을 활용한 세계 시장진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개최

< 싱가포르 유망기업 공동 IR 개요 >

○ 주최: 지식경제부
○ 일시/장소: 9.6(월), 팬 퍼시픽 호텔
○ 대표단: 지식경제부(김경식 무역투자실장), 중견기업 7개사*
* 녹십자, (주)디엠에스, 에스디엔(주), 코오롱생명과학(주), (주)나노엔텍, 카이노스메드, 크리스탈 지노믹스(주)
○ 투자가: 싱가포르內 금융 투자가 70여개사

□ 지식경제부 **김경식 무역투자실장**은 개회사를 통해 **"창의와 혁신의 DNA를 지닌 한국기업**과 **풍부한 자금력과 투자경험을 지닌 싱가포르 투자가의 결합은 최상의 조합"**이라고 평하며, 투자를 권유하였음

□ 동 행사는 기술력 있는 국내 유망기업 7개사의 공동 IR과 함께 최근 한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**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 분야에서의 투자기회에 대해 소개**하여, 현지 투자자들의 열띤 호응을 불러일으켰으며

○ 설명회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한국에서의 다양한 투자기회를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함

□ **싱가포르**는 일본과 함께, **아시아지역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크게 투자하는 국가**로서 그간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지역 투자 관문* 및 중화자본의 해외진출 관문**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

* 글로벌 기업의 아태지역본부 다수 싱가폴 소재
** 싱가포르는 중국의 5번째 해외직접투자 대상국('08년 기준, 중국 상무부)

○ 그간 물류·유통업에 집중되었던 싱가포르 기업의 對韓투자 대상 분야*가 최근 기술력 있는 국내 유망기업에게로 확대**되고 있는 추세임

* 업종별 투자현황(09년기준) : 물류·유통 1.6억불(36%), 전기·전자 1.2억불(28%), 부동산·임대 0.8억불(19%), 비즈니스서비스 0.3억불(7%)

【유망기업 투자사례】

사 례	주요 내용
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'서울반도체' 2.3억불 투자('09.11월)	○서울반도체는 LED 분야에서 5,000여개의 특허를 보유하고, 양산체제를 갖춘 기술력 있는 기업 ○테마섹의 투자로 서울반도체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LED시장에서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한 자금 확보
테마섹의 셀트리온 1.9억불 투자(10.4월)	○셀트리온은 최근 급격히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분야의 선도업체로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양산시설 보유 ○테마섹의 투자로 셀트리온은 공장신설 및 바이오시밀러 임상실험을 위한 대규모 자금 확보

○ 금번 행사를 계기로 **싱가포르의 금융자본과 국내 유망기업의 기술의 결합이 보다 가속화**될 것으로 기대됨